

# 이정효 감독 “첫 경기부터 ‘광주 축구’ 보여드릴 것”

광주FC

## K리그 미디어데이 출사표

‘이름’ 유니폼 입고 등장 눈길 4강 위협하는 다크호스로 꼽혀 안영규 “마지막에 웃도록 최선을”

“첫 경기부터 광주 축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승격팀 광주FC를 이끄는 이정효 감독이 새 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정효 광주FC 감독은 2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2023시즌 광주만의 색깔을 내는 게 목표다. 내 소신을 꺾지 않고 광주의 축구를 그대로 밀고 가고 싶다. 수원 삼성의 이병근 감독이 작년에 많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올라오기 힘들었다”며 “우리는 잔류가 목표가 아니다. 어웨이 첫 경기, 수원 삼성 원정에서 수원 팬들에게 우리 축구를 알려주고 싶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는 지난 시즌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K리그2 우승을 거머쥐고 1년 만에 다시 K리그1에 복귀했다.

광주는 올시즌 K리그1에서 더 강한 팀들을 상대하게 되면서 강등 후보로 거론되지만 이정효 감독과 주장 안영규는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이정효 감독은 “4강 안에 올라 가기 위해 모든 팀이 우리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승점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안영규도 “광주가 강등 1순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생각을 뒤집고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정효 감독은 이날 정장 대신 ‘이름’ 유니폼을 거꾸로 입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감독은 “이름 선수들이 동계 훈련 때 준비를 굉장히 잘 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큰 부상을 당했다.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하나 생각하고, 나름대로 위로를 해줬는데 그걸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름의 유니폼을 입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광주는 남기일 제주유나이티드 감독으

로 부터 다크호스로 지목됐다.

남 감독은 “4위권을 위협하는 다크호스는 K리그2에서 올라온 광주다. 이유는 이정효 감독과 같이 오래 있었는데 감독으로서 능력도 좋고 자신감도 있다. 선수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영규는 올시즌 3차례의 맞대결에서 모두 이겨보고 싶은 상대로 제주유나이티드를 꼽았다.

안영규는 “모든 팀이 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감독과 제자의 연이 있는 남기일 감독님의 제주를 상대로 3승을 해보고 싶다”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광주는 올시즌도 ‘공격 축구’로 팬들의 응원에 보답할 것을 다짐했다.

이정효 감독과 안영규는 ‘광주가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라는 질문에 대해 ‘1골 2골 3골-공격’이라고 쓰던 “한 골을 넣어도 세리머니 하지 말고 공을 들고와서 1골을 더 넣으려는 공격 축구를 팬들이 좋아해줬다. 올해도 공격 축구로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한 기자 cdstone@jinilbo.com



광주FC 이정효(왼쪽) 감독과 주장 안영규가 2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개막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리그5호 합작’ 손-케 듀오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2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27분 팀의 두 번째 골(리그 5호)을 넣고 도움을 준 해리 케인과 환호하고 있다. 손흥민은 후반 교체 출전해 4분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으며 토트넘은 2-0으로 승리하며 4위를 탈환했다. 손흥민은 이날 득점으로 토트넘 소속 98호골을 기록했다. 이는 97골의 테디 셰링엄을 넘어 토트넘의 EPL 역사상 득점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AP/뉴시스

## 전남체육, 동계체전 역대 최다 메달·최고 득점 ‘종합 8위’

조다는 5관왕 등 금 19개 획득  
광주는 1·동 1개... 종합 13위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남 선수단이 역대 최다 메달과 최고 득점을 획득하며 종합 8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종합 1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전남선수단은 17~20일 서울, 경기, 강원, 경북에서 분산 개최된 이번 동계체전에 6개 종목에 224명(선수 123·임원 10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19개, 은메달 9개, 동메달 8개 등 총 36개의 메달을 획득, 종합득점 330점으로 종합 8위로 대회를 마쳤다.

순위는 지난해보다 1계단 하락했지만 전남의 동계체전 사상 역대 최다 메달과 최고 득점이다.

전남은 5관왕 1명, 4관왕 2명, 3관왕 1명 등 다관왕도 다수 배출했다.

지난해 제103회 대회 초등부 5관왕을 차지한 ‘한국 크로스컨트리 기대주’ 조다은(화순제일중 1년)은 이번 대회에서도 스키 크로스컨트리(여자16세이하부) 5개 전 종목(클래식 5km, 프리 7.5km, 15km 계주, 복합, 1.2km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2년 연속 5관왕을 달성했다.

‘크로스컨트리의 샷별’ 나경준(다시초 6년)은 클래식 3km, 복합, 8km 계주, 스프린트 0.7km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꿈나무상을 수상했다.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티모페이 랍신(전남체육회)은 4관왕(스프린트 10km·집단출발 15km·22.5km계주·혼성계주)에, 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석정마크써밋)가 3관왕(스프린트 7.5km·집단출발 12.5km·혼성계주)에 올랐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체육은 2년 연속

동계체전에서 한자리수 등위에 오르며 더 이상 동계종목 불모지가 아님을 증명했다. 화순초-화순제일중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연계육성 시스템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현재 초-중으로 이어진 크로스컨트리팀의 고등부부재, 바이애슬론팀의 학생팀 부재, 빙상종목 선수육성 확대 등은 과제다.

광주는 6개 종목에 116명(선수 59·임원 57명)이 출전해 은 1개와 동 1개를 따내며 종합득점 116점으로 종합 13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계단 오른 순위고 종합득점도 지난해보다 40.5점 올랐다.

광주는 사전경기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의 장운우(성덕초 5년)가 2000m 동메달을, 피겨스케이팅의 문승현(주월초 4년)이 프리스케이팅 은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최동한 기자

## ‘KIA 슈퍼루키’ 운영철, WBC 국대 상대 프로 첫 등판

2이닝 4피안타 2실점  
“선발 한 자리 꿰차고 싶어”

KIA 타이거즈 ‘특급 좌완 신인’ 운영철(19·사진)이 국가대표팀을 상대로 한 프로 첫 실전 등판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운영철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 키노 베테랑스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과 연습경기에서 KIA의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 2이닝 4피안타 2실점을 기록했다.

운영철은 45개의 공을 던졌고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4개 구종을 점검했다. 직구 최고구속은 136km를 찍었다.

운영철은 3-5로 뒤진 3회 마운드에 올

라 선두타자 강백호에게 2루타를 맞았다. 박건우와 오지환을 각각 중견수 뜬공과 투수 땅볼로 처리하며 한숨을 돌렸으나 김태성에게 적시 2루타를 맞고 첫 실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2사 2루 위기에선 이정후를 2루수 직전타로 막고 이닝을 마무리했다.

4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운영철은 선두 양의지를 좌익수 뜬공으로 잡았지만 최정과 김현수에게 연속 안타를 맞아 1사 1·3루 위기에 몰렸다. 이어 박병호에게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허용, 2실점째 내준 뒤 강백호를 2루수 땅볼로 유도하고 등판을 마쳤다.

운영철은 등판을 마친 뒤 구단을 통해 “프로 첫 실전 등판이라 긴장도 많이 됐는데 한승택 선배님이 리드를 잘 해주 편하게 던질 수 있었다”며 “마운드에 올라가니



아웃카운트를 잡고 싶은 오기가 생겼다. 이정후, 강백호 선배님과 대결을 해보고 싶었는데 역시 스윙도 잘 돌리시고 어느 공이든 컨택 능력이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첫 등판 소감을 말했다.

운영철은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뽑히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우선 소속팀에서 잘 해야만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소속팀에서 잘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운영철은 올시즌 신인왕과 선발 욕심도 내비쳤다.

그는 “이의리 선배님이 이뤘던 신인왕에 대한 욕심도 당연히 있지만 일단은 아프지 않고 꾸준히 던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선발투수 자리를 꼭 차지하고 싶다. 선발로테이션을 돌게 되면 승수도 조금씩 쌓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동한 기자